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바친다(見危授命), 자기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殺身成仁)라는 공자 말씀이 있다. 유급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서 생(生)을 버리고...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을 읽으며

찌르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호남에 많았으니 어찌 그 산천이 웅혼하고 빼어나며 풍속이 호탕하고 뛰어나며 의기를 숭상하고 명절을 중시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여 다른 어떤 지역, 어떤 도에도 없는 데, 오직 호남에 절의록이라는 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를 말하여 호남인들의 의기와 산천과 풍속의 훌륭함까지를 칭송하였다.

이 크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의 업적까지 밝혀 있으니, 더욱 빛나고 자랑스러운 책임을 알게 된다. 김동수 교수가 역주하여 경인문화사에서 2010년에 간행한 번역본 ‘호남절의록’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계 숫자로 제공했다. 5대 난 때마다 활동한 의병의 통계는 무려 146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급 의병장이 그런 정도의 숫자였다면 “오직 호남에서 가장 성하였다”라는 홍양호의 주장이 정확함을 알게 해준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A는 중학교 때 친구다. 그녀는 야구팬이었다. 야구를 좋아하는지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하여튼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줄곧 TV 앞을 지켰다. 그녀를 따라 난생처음 팬데타라는 것을 써 보게 되었다. 뒤라고 썼는지, 그 편지를 부쳤는지 안 부쳤는지는 가물거물하지만,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문방구에 들러 편지지를 고르고 빈 교실에 앉아 하얀 종이를 채워가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다.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B는 앞집에 살았다. 그녀를 따라 가수 P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래도 가까이 따라나섰다. 구경이란 언제나 낯설고 신기한 선물을 가득가득 안겨주곤 하니가. P는 부드러운 미소에 말끔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다. 사람들은 P의 노래를 따라 물결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휘휘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모두가 오직 한 사람에 도취한 듯 뜨거운 함성을 질러대는 특별한 밤이었다.

다른 말이 아닐까요? 그분의 주장인즉 글쓰기는 혼자서 하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왠지 나를 겨냥한 듯싶어 뜨끔 놀랐다. 말쑥이 떨어져 구경이나 하는 본새가 영 어니울시다 싶은지도 몰랐다. 이어서 떠오른 한 구절,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꿈꾸는 2040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민주화 이후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 내 처리한 건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30여 년이 넘는 동안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을 처리한 게 고작 두 번인 셈이다.

신자유주의 예산 대 복지 예산 전쟁

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자금 집행 또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외치면서 매년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100여 개 낱짓한 대기업을 위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세 등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 13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리고, 지하와 옥탑방에 거주하는 2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안은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社說

불안한 재가동 한빛4호기, 안전 대책 철저히

부실 공사로 5년 동안 멈췄던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본부는 어제 오전 3시 40분부터 한빛 4호기가 발전을 재개해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수 공사를 진행한 한빛 4호기의 구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결정했다.

회할 수 없고,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부 돔에도 얼마든지 공극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 조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 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반발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수 공사를 진행한 한빛 4호기의 구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결정했다.

화물 파업 중단...여야 ‘안전운임제’ 머리 맞대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 만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파업-정파 등 각 지역 세부별로 해단식을 연 후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이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장기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운임제 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의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無等鼓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12월 25일)이 다가오면서 도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다. 어두컴컴한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오색의 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삼각형 모양의 나무에 다양한 전통과 종 등을 달아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시그니처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이 하나둘 쏘아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는다. 보잘 것 없는 인간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으면 달빛에 나무가 반짝이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이 하나둘 쏘아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는다. 보잘 것 없는 인간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으면 달빛에 나무가 반짝이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이 하나둘 쏘아지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는다. 보잘 것 없는 인간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받으면 달빛에 나무가 반짝이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